

SNK,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2157% 달성 성황리 종료

- SNK 자체 IP 20여개 게임 내장해 정식 발매
- 금일(7일)부터 순차적으로 배송 시작



SNK 인터랙티브가 지난 달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를 통해 선보인 ‘네오지오 아케이드 스틱 프로 (이하 네오지오ASP)’ 펀딩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.

지난 달 16일부터 약 보름간 진행된 네오지오 ASP 펀딩은 시작 5분만에 목표액 100%를 달성, 이튿날 400%를 달성하면서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. 이번 펀딩이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최근 ‘복고’ 열풍이 확산되면서 한때 오락실에서 유행한 게임을 찾는 중 장년층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전 연령에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참여로 이어진 것으로 SNK측은 분석했다.

SNK는 지난해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200여개의 게임 IP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/중/일 국가로부터 두터운 팬층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.

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네오지오 ASP의 와디즈 펀딩을 통해 더 킹 오브파이터즈(KOF), 메탈슬러그, 월화의 검사 등 과거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 20가지를 내장해 선보이면서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.

SNK인터랙티브 홍보팀 관계자는 “이번 펀딩은 네오지오ASP 퀄리티 좋은 제품과 더불어 과거의 향수를 상기 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”며 “클라우드 펀딩 특성상 펀딩 이후 배송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” 고 전했다.

한편, 펀딩이 완료된 제품들은 금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을 시작한다.<끝>

<자료 문의>

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(010-5477-0979 / skchun@snkcorp.co.kr)

<SNK 인터랙티브 소개>

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.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‘더 킹 오브 파이터즈’ ‘아랑전설’ ‘메탈슬러그’ ‘사무라이 스피리츠(사무라이 쇼다운)’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(IP)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,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.